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경영저널

64TH
202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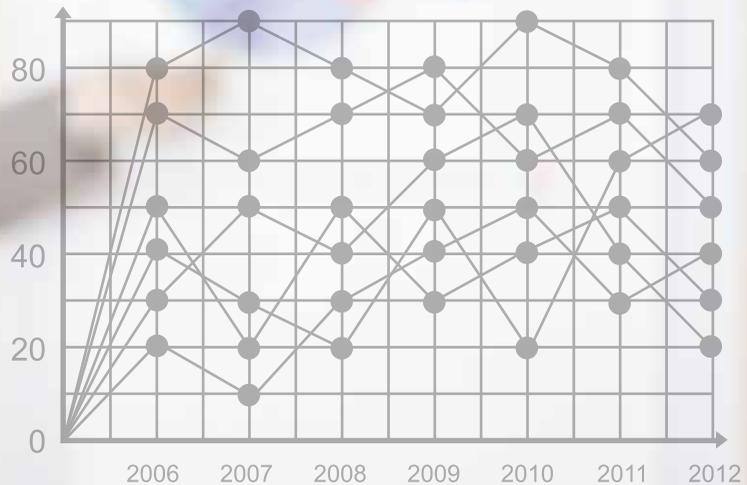


Hot Issue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포츠과학과 올림픽
 공공요금 대구광역시 상수도 요금 진단
 정책제안 대구 동구청 정책제안
 커버스토리 최기문 영천시 시장
 지자체가 된다 도시철도 영천연장선 2030년 개통
 기업탐방 지역산업"R&BD허브"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이달의 대경인 (주)신라시스템 박창병 대표 인터뷰
Economy 경기침체의 공포와 한국경제
 칭찬합시다 어모면행정복지센터 조운주 맞춤형복지팀장



경북도지사 기획 특집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contents |

14



- 06 **청호(靑浩)칼럼**
경북도, 노인갈등 심각
- 08 **공공요금**
대구광역시 상수도 요금 진단
- 10 **경영평가**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PDCA
- 12 **법과 제도**
국방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4 **커버스토리**
최기문 경상북도 영천시장
- 20 **지자체가 된다**
'금호 역세권 개발 추진' 도시철도 영천연장선 2030년 개통
- 22 **영천시 산업**
미래 성장의 원동력 영천의 산업단지
- 24 **음식평가**
건강한 식재료에 손맛 좋은 주인장의 솜씨와 정성이 더해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안심정"
- 26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획 특집**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 30 **Hot issue**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포츠과학과 올림픽
- 32 **Economy**
블랙먼데이(black Monday) 부른 경기침체의 공포와 한국경제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종합학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과물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Tel) 053-811-2820



- 34 **지역정가 소식**
수성구의회 의장 조규화 의원, 부의장 최진태 의원
- 36 **칭찬합시다**
척척 수행하는 김천의 씩씩이,
어모면행정복지센터 조윤주 맞춤형복지팀장
- 38 **이달의 대경인**
정보통신(IT) 전문기업 (주)신라시스템 박창병 대표 인터뷰
- 40 **기업탐방**
지역산업"R&D허브"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 42 **축제 및 관광 story**
경북 축제
- 46 **초대석**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과 대구경북지역의 비전
- 48 **정책제안**
대구 동구청 정책제안
- 50 **대구 경북 단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동성로 관광특구!
경상북도, '아이 키우기 최적지'로 급부상
- 54 **불편한 진실**
소방서, 화재 피해추정 엉터리



경영저널 YOUTUBE

경영저널 통권 제64호

발행인	이진구
편집국장	김문철
편집위원	조대영, 윤일형, 박균익, 김용우
취재	김원현, 오상원, 이가윤, 이경윤
사진	신영민
편집디자인	김수영
디자인·인쇄	워커스 대표 김정석
발행처	http://www.경영저널.com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산.라 00011
창간	2007년 11월 5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9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100,000원
정가	10,000원
예금주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은행 225-12-003611
	농협은행 301-0258-049101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 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bmjglobal999@gmail.com
전화: 053)766-1368~9 FAX)766-0379

경북도, 노인갈등 심각



경상도는 사림학파의 본산지이며, 사림학파인 영남학파는 이상주의, 명분론, 그리고 공경과 예의를 중시했다. 그런 까닭인지 유난히도 경북도의 노인들 간의 갈등이 타 시·도에 비해 노인들 갈등이 보다 더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봉화, 상주, 청송 등 농약 사망사건 초래

노인들 간의 불화와 갈등은 경로당에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농약』을 이용한 사망 사건의 결과로 이어진다. 봉화에서 지난 7월 15일 초복에 일명 「오리고기 농약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입원하였다. 상주에서도 2015년 7월 14일 초복에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은 마을회관에서 7명 할머니가 사이다를 나누어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청송에서도 2016년 일명 「농약 소주 사건」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노-노 갈등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들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경로당과 노인들 간의 갈등이 꼽히며, 허술한 농약 관리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갈등의 장소인 경로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

대적 가치관 혼동과 사회 통합적 갈등의 요인이 무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와 시·군은 그런 연후에 갈등 해소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농어촌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0, 70대, 80대이상 노인들 간의 갈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일반 주민 608명, 다문

화가족 101명, 귀농·귀촌인 101명, 총 농촌주민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지자체 선거 영향으로 인한 갈등, 노인들 간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경로당에서 60, 70대, 80대이상 노인들 간의 갈등이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부 격차, 소외 및 편 가르기

이러한 갈등의 이유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심화」가 57.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 답변은 「장애인,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 문제」가 48.3%, 「이해 당사자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가 45.9%, 「갈등 조정 기구 및 갈등 조정 제도의 미비」가 44.4%로 나타났다. 다음의 답변은 「개인·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포용 부족」이 43.7%, 「시장·군수, 시·군 의원 선거후보의 정당 공천」이 43.3%, 「복지·의료서비스의 수급 불균형」이 42.0% 각각 나타났다.



이진구
대표이사·발행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OF KOREA
2024.01.01 ~ 2026.12.31



척추·관절
대구우리들병원

T.(053)212-3000

목

+

허리

+

관절

One Stop Total Service

첨단 정밀 비수술 치료부터
고난도 미세 수술까지

최소 침습 치료의 첨단 방법과
원칙을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대구우리들병원



대구광역시 상수도 요금 진단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상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해(79% 수준) 투자비용 부족으로 '22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24년 1월에 최종인상을 하게 되었다.

요금 현실화로 확보한 재원은 전액 수질 개선 및 노후 정수장 개량,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문수정수장

물이용 부담금 안내(군위군 제외)	물이용 부담금 안내 (군위군)
<p>사용량×170원(부과율)×0.936(부과계수) = 사용량×159.1원</p> <p>- 적용시기 : 2024년 3월 고지분부터</p> <p>단, 짝수 격월고지 대상은 2월 고지분 (2개월 사용량 중 1개월분)부터 적용</p>	<p>사용량×170원</p>
<p>- 공업용수는 m³당 170원</p> <p>단일수계이므로 부과계수 미적용.</p>	

*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군위군 제외)

구경별 기본요금			업종별 사용요금(m ³ 당)	
구경별(mm)	금액(원)		업종(코드)	금액(원)
	냉수용	온수용		2024년 이후
13	1,150	370	가정용(01)	690
20	2,400	470		
25	2,800	500		
32	3,800	720	일반용(02)	1,290
40	5,000	1,020		
50	16,000	1,770		
80	23,000	공 업 용	욕탕용(03)	1,170
100	30,000			
150	49,000			
200	87,000		원인자부담(04) (성서, 염색)	370
250	164,000		원인자미부담(05) (서대구, 달성)	480
300	273,000			
350	436,000			
400이상	491,000			

* 출처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트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군위군)

상수도요금 요율표(1개월 사용량 기준)				
업종별 사용요금(m ²)				
업종	사용수량(m ³ /월)	단가(원)		
		2024~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가정용	1 ~ 20	545	570	690
	21 ~ 30	765		
	31 이상	1,035		
일반용	1 ~ 50	788	1,040	1,290
	51 ~ 100	953		
	101 ~ 300	1,183		
	301 ~ 500	1,491		
대중탕용	1 ~ 300	829	1,010	1,170
	301 ~ 500	989		
	501이상	1,239		
전용 공업용	1 ~ 200	788	480	480
	201이상	1,261		

* 출처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트

오상원 기자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PDCA



경영실적평가보고서의 기본 이해

경영실적평가보고서는 기업 또는 조직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 및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주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의 일환으로 구성된다. 계획(Plan) 단계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Do) 단계에서는 이를 실제로 이행한다. 그 후, 점검(Check) 단계에서는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조치(Act)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조직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실적평가보고서는 조직의 경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PDCA 사이클 개요

PDCA는 Plan-Do-Check-Act의 약자로, 경영 관리 및 품질 관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이클인데, 이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계획(Plan) 단계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Do) 단계에서는 계획을 실제로 이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

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해야 한다.

점검(Check)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한다.

조치(Act) 단계에서는 점검 단계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단계에서는 발견된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과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PDCA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경영실적평가보고서의 중요성

경영실적평가보고서는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조직의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파악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조직 외부적으로는 투자자, 고객,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성과를 알리는 데 사용된다. 이는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목표 설정: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를 선정한다. 이때, 목표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해야 하며,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평가 지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때,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수집해야 한다.

◇ 분석 및 평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 개선 방안 도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보고서 작성: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목표, 평가 지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고 및 피드백: 완성된 보고서를 상사나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을 추진하거나, 보고서를 수정한다.

조대영 연구위원

■ 법과 제도

국방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방산원가 대상물자에 대한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개정)
- 나. 개산계약 가격결정 기준 정비(안 제27조 개정)
- 다. 기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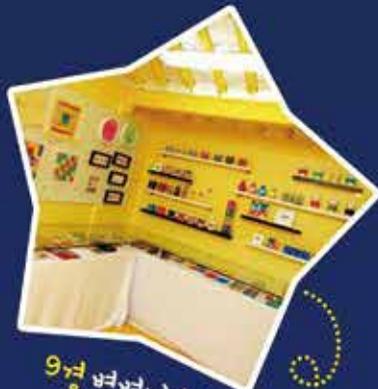


■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p> <p>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p> <p>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이하 “필수수리부속품”이라 한다)</p> <p>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p> <p>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p> <p>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15호 가목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p> <p>나. 법 제3조 15호 나목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이하 “필수정비”라 한다)</p> <p>다. 법 제3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물자</p> <p>라. 법 제3조 제15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p>

윤일형 연구위원

새희망, 새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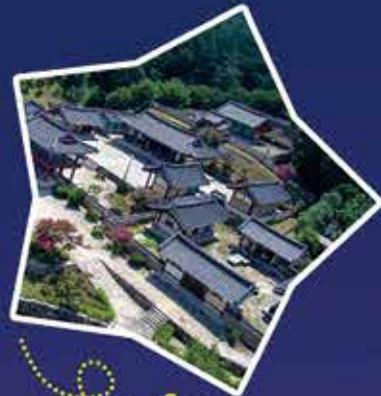
9경 벌벌미술마을



1경 은하사



8경 영천한마아일랜드



2경 임고서원

영천으로 9경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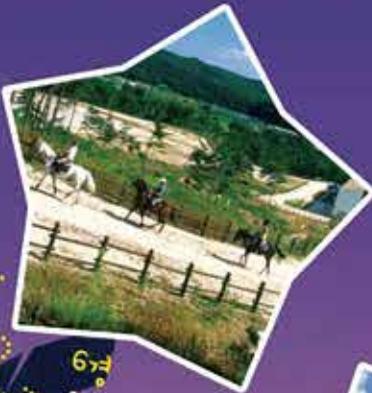
와보면 반한day!



7경 영천댐 뱃포 백리길



3경 보현산 천문대



6경 은주산 승마자연휴양림



5경 보현산대출렁다리 & 지와이어



4경 치산관광지



| 인터뷰 |

최기문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

Profile

1952년 08월 25일 영천 출생

2022년 07월 ~ : 민선8기 제11대 경북도 영천시 시장(현)

2018년 07월~2022년 06월 : 민선7기 제10대 경북도 영천시 시장

2007년 01월 : 한화그룹 고문

2003년 03월~2005년 01월 : 제11대 경찰청장

2001년 11월~2003년 03월 : 경찰대학 학장

2000년 12월 : 경찰청 차장

1999년 01월~1999년 11월 : 제10대 경북지방경찰청 청장

1976년 01월 : 제1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21년 대구대학교 대학원 명예 철학박사

1997년~2001년 동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1975년~197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1971년~1975년 영남대학교(경영학 학사)

1971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1968년 대구 능인중학교 졸업

1965년 영천 북안초등학교 졸업

■ 커버스토리

영천은 보현산의 높은 기상과 금호강의 맑은 정기가 조화를 이루며 이수삼산(二水三山)의 풍광과 함께 인심 좋은 곳으로 이름나 있는 곳이다. 포은 정몽주 선생과 박인로, 최무선 장군 등 많은 선현들을 배출하고 임진왜란과 6.25 사변 때 분연히 일어난 자랑스런 호국충절의 고장이다.

소통과 화합, 섬김의 시정 추진으로 영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위대한 영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경마공원, 그리고 산단조성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력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위대한 영천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고자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8기를 출범하며 ◇시민중심 공감행정, ◇생동하는 산업경제, ◇멋들어진 문화관광, ◇미래지향 복지교육, ◇찾아오는 부자농촌 등 5대 시정전략을 표방함으로써 시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실현한다」는 여민유지(與民由志)의 자세로 혁신의 시정을 힘차게 펼쳐왔다.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양수청풍(兩袖淸風)의 마음가짐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며 녹조근정훈장 및 황조근정훈장, 상곡인권상 최우수상, 그리고 농협중앙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등을 수상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님과 시정 성과와 분야별 역점시책, 미래 비전

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민선 8기 지난 2년간 불철주야 많은 일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주요 성과는 어떠한가?

A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영천의 미래 조성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지난해 58건의 역대 최다 기관수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고등급 획득,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그리고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경북 첫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모 선정되어 국비 91억원을 확보하고, 68년 만에 제2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국



내에서 두 번째로 길이가 긴 보현산담 출렁다리를 지난 해 8월 개통 후 총방문객 55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탄한 기업들을 유치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스마트 성장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화신'과 '로젠기업'을 유치하고, 영천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에는 '영진'과 '금창' 기업의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금호·도남·고경·대창·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5개소 3,636천m²(11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영천만의 산업단지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는 인근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첨단·혁신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브센터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에 성공한 '영천별아마늘'은 경북 1호 마늘공판장 개장과 함께 피자, 건강기능식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마늘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 융·복합 마늘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Q 선진일류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영천에 붙고 있는 변화의 새바람은 어떤 것인가?

A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금호) 연장사업에 발맞춰 금호역세권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역세권개발추진단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천경마공원', 내년 준공 예정인 '금호·대창 하이패스 나들목' 그리고 '금호일반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다른 도시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역세권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내년 초 준공을 앞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자동차 부품 업체인 화신과 물류 기업 로젠택배를 유치했습니다. 2개 기업의 투자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영천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에도 영진과 금창 기업이 320억원의 투자 MOU를 체결해 지역 자동차 부품과 물류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2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적지에는 '미

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로 개발할 계획으로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첨단 자동차 기업 등 전략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성내동 및 화룡동 '공공정비형주거단지'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소멸 내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영천시가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A 영천시는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육 공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30% 증액한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134명의 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자녀·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에 이용요금 전액을 지원해 부담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 급여를 올해부터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4년 하반기에 완산동 5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26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총 7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4개소를 확충해 질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연면적 1,000m² 규모의 영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27년 개소를 목표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되는 등 아동친화도시 영천을 향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지역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재양성을 위해 영천시는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나?

A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영천시 백년대계의 초석이 됩니다. 영천시는 시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이유로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최대 90억원의 특례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초등 교육환경 내실화, 공교육 혁신으로 영천형 교육체계구축, 지역밀착형 인재양성이라는 세가지 전략을 추진해 돌봄부터 취업까지 책임있는 교육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비 137억여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75억원으로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철거하고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인 한민고등학교 (전국 유일의 군인자녀 기숙형 명문고) 모델의 군인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영천이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영천시는 지난해 대구 군부대 유치경쟁에 나섰는데, 군부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영천시는 팔공산과 보현산에 기반한 방호작전 능력과 포항·울산을 통한 신속한 해상 연계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형적으로도 군사 전략적으로도 후방작전의 사령부가 주둔하기 적합한 지역이어서 대구 군부대 이전의 최적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을 기반으로 대구시 전역을 한 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영천시와 인접 도시에 산재해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를 40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학군이 갖춰져 있어 군인 및 군인 가족들에게 역세권과 우수한 학군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해 영천시와 영천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시민중심의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학술심포지엄과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10만 서명운동과 범종교연합 공동지시선언 등으로 영천시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후보지와는 별개로 공용화기 사격장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민들로 구성된 대구 군부대 민간유치추진위원들과 시민 의견 수렴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대응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공용화기 사격장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공식 요청했고, 향후 대구 군



부대 민간유치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증대에 나선다. 영천시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은?

A 지난해 12월 영천 별아마늘의 해외 첫 수출길이 열려 뉴욕에서 미국 농산물 유통업체와 영천 별아마늘을 연간 1,000톤, 약 450만불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천시 농식품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뉴욕한인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장을 경제정책 자문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수출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고 현지 매장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무역사절단 단장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중소기업협회, 한국상공인연합회, K-market 등과 MOU를 체결하고 총984만 달러 규모의 크고 작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7월에 무역사절단으로 참여했던 비료회사의 유기질비료도 수출로 바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경쟁력을 가진 지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활발히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영천은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경북 대표 힐링관광지로 유명한데, 지난 2년간 공을 들인 관광사업시책을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

A 지난해 8월 개통한 보현산담 출렁다리는 개통 이후 전국에서 55만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출렁다리 위로는 시속 100km의 속도로 내려오는 짙와이어를 타고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고, 옆으로는 2.5km 둘레길이 있어서 산책을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보현산 관광벨트에는 산정상에 국내 최대 연구 시설인 보현산 천문대가 있고, 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 등 캠핑인프라가 풍부해 체류형 관광지로 적합합니다. 천문과학관, 산림복합체험관, 천수누리길 등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빼어난 자연경관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연계해 화북면 입석지구에 카페, 먹거리촌, 숙박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공연 공간과 탐방로,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 조성사업도 추진해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착공한 영천시립박물관, 용역 착수에 들어간 문화예술회관, 신성일 기념관 등 지역 곳곳에 문화공간을 확충해 앞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누릴 수 있는 감성과 품격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영천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을 한다면?

A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영천의 발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민선 8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제 스스로 늘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직자들에게도 가장 많이 주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직접 듣고 발로 뛰는 만큼 영천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목표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경제, 문화·관광, 농업, 복지, 정주환경 등 전 분야에서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 누구나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영천만의 멋진 미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도시, 작아도 모든 것을 갖춘 행복한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로지 영천의 발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비상하는 영천을 위해 뜨거운 응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편집국



'금호 역세권 개발 추진' 대구도시철도 영천연장선 2030년 개통



영천경마공원 조감도

영천경마공원 영천유치 13년 만에 착공

2009년 12월 한국마사회 제4경마공원 후보지 공모에 경북 영천시가 선정되면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태동된 이후, 2022년 9월 첫 삽을 뜨게 되었다.

13년 이란 오랜기다림 끝에 영천경마공원이 착공되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영천경마공원은 영천의 랜드마크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44만평 부지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3,657억원으로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사업부지 매입비로 60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마사회에서 3,057억원을 투입하여 영천경마공원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고 경주로, 관람대, 마사, 동물병원 등 경마 필수 시

설과 함께 루지존, 힐링승마원, 수변공원, 야생화정원, 피크닉가든, 가족캠핑장 등 지역민의 힐링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농식품부·국회·경상북도·한국마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어렵게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만큼 영천경마공원을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말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고 누구나 공원에 이용에 제한이 없는 시민 경마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2026년 문을 열게 될 '영천경마공원'은 새로운 레저와 휴식의 공간으로, 경북도와 영천시에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직원들과 양산 역세권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인근의 관광도시와 주변 대도시 사이에서 잠깐 스쳐가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영천이 영천경마공원 으로 인해 이제는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영천경마공원은 영천시가 말 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옹도 경북의 희망이 되고 세계속의 영천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영천시의 변화된 내일이 기대되는 확실한 이유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영천(금호)역 개통으로 경마공원 관람객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영천(금호)역에서 영천 관광지 곳곳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시장은 공무원 20여명과 역세권 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경남 양산시와 경산시 현장을 찾아 영천시 금호 역세권 개발 사업에 접목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도시철도 개통 시 파급될 금호읍 경제 성장 극대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영천시 최 시장은 양산시 사송·물금신도시를 방문해 '나동연 양산시장'을 만나

고, 오후에는 경산시 임당 역세권 지구·대임공공택지를 견학하며 조현일 경산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사업설명과 성공 경험을 청취했다. 양산시는 2008년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LH에서 양산 물금신도시를 개발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조성하고 거점 국립대학병원 부산대학교 분원을 유치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간은 사송신도시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완료돼 분양 중이다. 경산시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 연

장 관련, 경북개발공사에서 임당 역세권 지구 주거 용지를 조성했고 대임공공주택지구는 LH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 중이다.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하양 구간은 영천시 금호읍까지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종착지인 Y2(가칭)역이 금호읍에 설치된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2030년에 개통되면 대구~경산~영천 철도 광역 교통권이 구축되고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각종 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현 기자



미래 성장의 원동력 영천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과 연구·지원 등 관련시설 및 그 시설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주거·문화 등 시설 등이 포괄적으로 집적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조성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국가 51개, 일반 732개, 도시첨단 46개, 농공 483개로 총 1,312개에 이르고, 입주업체는 125,213개사, 고용은 2,331,494명에 달한다. 영천시는 지난 5년간 금호·도남·고경·대창·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5개소에 3,636천㎡(11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다. 앞으로 첨단기술산업 및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영천시의 미래 산업 지도를 구축할 전망이다. 위대한 영천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영천의 대표적 산업단지를 소개한다.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고경산단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하여 2026년 12월말까지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산27-1 일원 면적 1,565,083㎡에 사업비 2,185억원을 들여 신탁사 위탁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사업기간과 면적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25년 12월말까지 면적 695,821㎡로 조성되는데, 현재 공정을 1단계 75%를 기록하고 있다.

고경산단의 주요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등이다. 영남권 교통의 요지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인 분양가로 성공사업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주)디씨티와 (주)와이엠프로폴은 영천시와 651원을 투자하는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주)디씨티는 칠곡군 소재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나노형광체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고, (주)와이엠프로폴은 영동군 소재 난연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규고용이 380명에 이른다.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2006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괴연동 일원에 면적 1,460,760㎡, 사업비 2,016억원에 조성되었다. 공업용지 수요충족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인구증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



지구는 최근 우량기업과 기업투자유치의 성과를 내고 있다. 2022년 4월 1일 에너지저장장치 자동차부품 업체인 한중 엔시에스와 100억원의 투자 MOU를 체결하고 올해 10월 26일 투자완료 예정이다. 올해 1월 17일, 2월 1일엔 차체용 자동차부품업체 (주)금창, 자동차 배터리케이스 업체 (주)영진과 각각 172억원, 120억원의 투자MOU를 체결하였다.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맞아 영천지역 친환경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2008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대개리 일원에 사업비 2,355억원, 1,222천m² (37만평) 규모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 스타밸리)가 조성되고 있다.

영천시는 스타밸리에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산업, 항공·자동차 인테리어산업, 스마트 링크(Wire,

Harness) 산업 등 3가지 산업의 테마를 중점적으로 기업유치할 계획이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제공, 쾌적한 정주여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북영천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천시 출자 R&D기관인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과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단지내 기업들에게 원활한 연구개발지원이 가능하다.

브랜드명을 영천의 '스타'시대를 상징하는 '영천스타밸리'로 선정해 마케팅 및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내에 건립하는 총사업비 348억원의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는 공공건축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2024년 11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8,830m²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3,044m², 30~50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의 기업입주 공간과 공동장비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전시실 등의 지원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클러스터구축

그동안 산업단지 공급정책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단지 수요패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천시의 미래 성장 원동력 산업단지를 영천시는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첨단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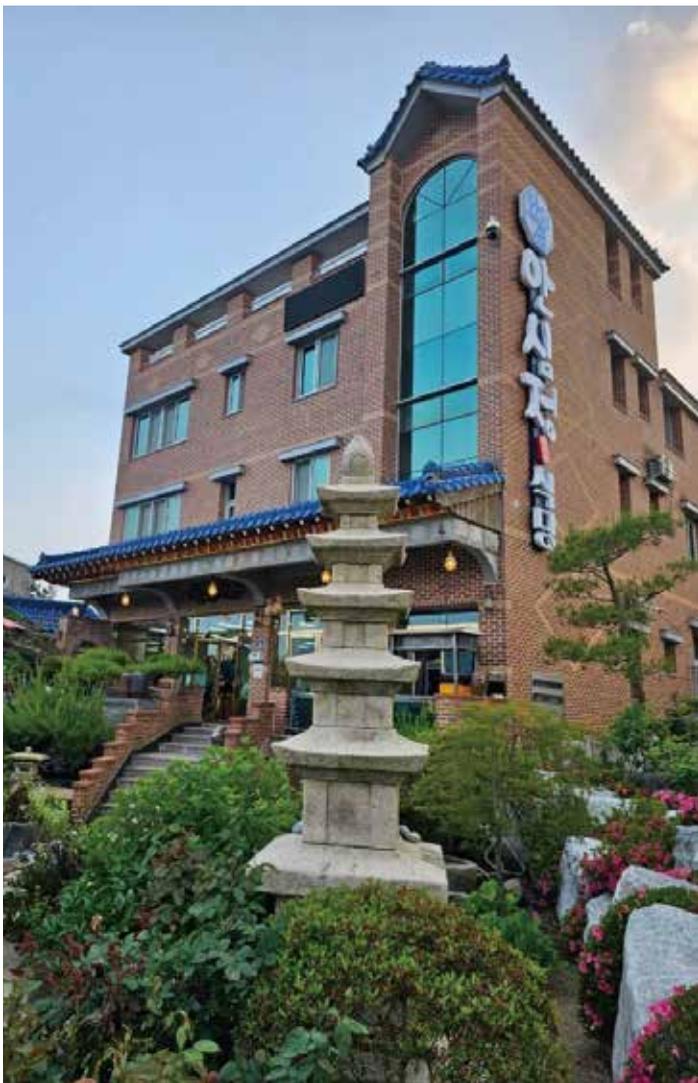
편집국

■ 음식명가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으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경북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에 위치한 '안심정'이 그 영예를 안았다.

건강한 식재료에 손맛 좋은 주인장의 솜씨와 정성이 더해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안심정"



임고면 효리 807, 대구~포항고속도로 임고하이패스로 내려 오션힐스 영천cc를 막 지나면 넓은 전용주차장과 앞뜰에 장독대들과 어울려 예쁘게 꾸며진 정원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한쪽의 멋스러운 수채화 풍경을 자아내고 큰 홀의 실내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아늑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 최성화(67년생) 대표가 운영하는 "안심정"이다.

최대표는 30대 초반 젊은 시절 조경사업에 몸을 담기도 하고 식자재 납품일도 한 것이 현재의 안심정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안심정은 지역의 숨은 맛집으로 영천cc 골프플레이어들도 단골로 찾는 음식점이다.

안심정의 대표 메뉴는 소고기볶음 고명이 특징인 산채비빔밥이다. 산채비빔밥은 신선초, 어수리, 취나물 등 6가지 산나물에 맛 좋은 소고기 고명이 함께 곁들여지는데, 영양군에서 최상의 산나물로 엄선해서 공수된 것으로 부드러운 식감에 맛과 향이 좋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뛰어나 건강증진에 탁월하다.

안심정은 양념부터 모든 음식을 솜씨 좋은 주인장이 전부 직접 만들고 있다. 반찬 만드는데 가미되는 멸치액젓과 한국의 3대 전통장류인 간장, 된장, 그리고 고추장까지 최대표가 일일이 직접 연구하고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음식에 깔끔하고 정갈한 맛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풍미까지 더해준다.

다른 식당에서는 보기 드문 초무침 반찬이 있는데, 가오리 및 돼지껍데기 편육에 무우, 깻잎, 당근, 양배추 등 갖

은 채소와 목이버섯이 들어가고, 매실, 살구 등 과일로 6개월 숙성한 초장으로 버무린 반찬은 가히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조연이다.

또 다른 특징적인 반찬은 굴젓갈이다. 삭힌 고추와 마늘에 조청을 첨가하여 시원한 맛과 비린 맛을 제거하는 청각, 그리고 제피 등으로 만든 굴젓갈은 비빔밥에 비벼 먹으면 입안은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김치 곁절이도 그날 그날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젓가락이 자주 가며, 비빔밥의 단짝 콩나물국도 시원하고 개운하다.

소고기 고명 대신 한우육회나 멧게 고명으로 제공되는 산채비빔밥은 감칠맛 도는 고소함과 상큼하고 씹살한 맛이 입맛 없는 사람들에게도 입맛을 돋게 하는 별미이다.

같이 곁들이면 좋은 생삼겹수육이 있다. 6개월 미만의 최상급 암태지인 하이포크 돼지고기를 사용한 삼겹살수육은 보들보들하니 피를 맑게 하는 당귀와 상추쌈에 새우젓갈과 된장 올려 입에 넣으면 그 맛은 가히 일품이다.

갓 도정된 좋은 일반미 쌀을 사용하여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밥은 그 맛이 풍부하며, 처음 내어주는 물도 그냥 물이 아닌 따뜻한 우영차로 주인장의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진다.

안심정의 모든 음식은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늦그릇에 제공된다. 늦그릇은 음식의 살균효과뿐만 아니라 신선함을 유지하는 생명의 그릇으로 손님들에게 음식에 건강한 맛을 더해준다.



안심정은 바로 옆 건물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표의 따님이 도맡아 운영하는 안심정카페는 커피부터 직접 만든 발효 매실, 살구, 오미자 등의 과일차와 한방차까지 다양한 메뉴들로 손님들에게 10% 할인된 금액에 제공되며 식후의 담소 장소로 제격이다.

최대표는 “젊은 시절엔 돈을 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젠 돈벌이보단 찾아주시는 손님이 있어 좋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며 얘기한다. 찾아주시는 손님들과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간직한 최대표는 임고면 차상위계층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등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환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천요식업협회 임원직을 수행하며 사회공헌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최대표는 올해 2월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숭선수범 참여하고 좋은 식단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최기문 영천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산6-2에는 국내 광학 천문관측의 중심지 보현산 천문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빛나는 보현산 천문대 하늘의 별처럼 최대표의 안심정은 영천의 대표 음식명가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리라.

편집국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올 초 경북도에서 시작된 저출생과 전쟁이 온 나라로 확산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경북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 경북도가 지난 1월 비상 조직인 「저출생극복 비상대책 TF」를 신설하고,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이다. 가파른 저출생 추세를 늦추기 위해 지난 5월, 100대 실행 과제를 내놓는 등 경북도의 절실했던 노력의 성과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 OECD 국가 중 단연 최하위다. 사회 유지에 필요한 인구가 한 해 70만 명 정도 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20만 명 남짓밖에 태어나지 않으니, 해마다 50만 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어떤 전쟁도 이 정도로 사람이 사라지진 않는다. 수치상으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저출생이라 명명할 만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해결의 근본 대책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의식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저출생을 우리 사회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나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틀린 구조와 의식이 결합해 진행되어 온 문제로 진단했다.

매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일자리를 찾아, 학업을 위해 불나방처럼 모여든다.

이 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과감히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극심한 경쟁 사회를 탈피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우수한 세계인들의 재능과 자원을 불러들여 성장의 에너지로 삼는 ‘개방 국가’로도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긴 호흡을 갖고 접근이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위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100대 과제 실행과 정부 건의, 인식 전환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융합 돌봄 특구’는 물론, 규제 개선,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한발 앞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해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의 인식 전환 캠페인 전개와 함께 저출생과 전쟁을 위한 기업, 시도민의 1만원 성금 기부(ARS 060-700-1988) 등 자발적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경북도발 저출생과 전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저출생과 전쟁은 회의감에서 점점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방안

경북도의 100대 실행과제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통해 자금도 신속히 확보했다.

전략은 크게 2가지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란 점, 그리고 현장을 잘 아는 경북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우선, 만남이다. 도가 분석한 결과 경북도의 90년대생 남녀 성비 자체가 불균형이었다.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이 130명으로 여성보다 그 수가 더 높았다. 20~30대 청년들의 만남 기회도 적었다.

경북도는 직접 결혼정보회사가 되어 만남을 주선했다. 청춘동아리, 솔로마을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을 제공하는 매칭 이벤트를 열었고,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신청 단계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1기 결과 청춘동아리는 44%, 솔로마을은 46%의 매칭율을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연말에는 커플들

을 선발해 크루즈 여행도 보내줄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걱정도 덜어준다.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총 3천 가구에 전·월세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경북은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21세기형 공동체 돌봄을 직접 디자인했다.

공동체 돌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K-보듬'으로 아파트 1층에서 돌봄공동체가 24시까지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 등과 함께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본다. 올해 5개 시군, 42개소에 시범운영 후, 도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내놓은 100대 실행 과제 대부분은 현장에서 빠르게 가동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치하한 바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합계출산율 상승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략적 구상

경북도는 100대 과제 등 기존 대책은 강화하는 한편, 신화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수도권 집중 및 사교육비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여성이 지역에 돌아오고 머무는 ‘여성 친화’ 경북도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간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 주재로 진행해 온 공무원 중심의 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혁신 대책회의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 ◇직원 역량 강화 등 5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를 전면 확장한다.

향후 경북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의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제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추세 반동을 위해 앞으로

도 100대 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면서, “민간 전문가 협업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여러 사람의 지혜도 모으는 노적성해(露積成海)와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저출생 대응 전략으로 휘몰아치는 저출생의 파고를 뛰어넘어 희망찬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길 것이다.

편집국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한다면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출산율 0.7명대, 매일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habaco

공익광고협의회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포츠과학과 올림픽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SNS 데이터 및 이동 통신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마케팅 및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널리 활용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각종 센서, 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운동선수들의 움직임을 다양한 정형 및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로 수집하고, 선수들의 성적, 경기기록, 팀의 전략 등을 함께 분석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법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역대 2위에 해당하는 2024 파리올림픽 성적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역대 최소 규모인 선수 144명이 출전하였지만, 성적은 그와 반대였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총 메달 32개를 획득하여 종합 8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33개를 얻은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성적이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엘리트 체육 인구의 감소 및 지난 2020 도쿄올림픽(2021년 개최) 성적을 바탕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하였으나, 역대 2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낳게 해준 효자 종목은 바로 양궁대표팀의 선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궁에서는 남녀개인전, 남녀단체전, 혼성단체전 모두에서 금메달 5개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여자양궁대표팀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10연패 달성의 대기록을 거두었다.

빅데이터 기반 스포츠분석

빅데이터 기반 스포츠분석은 경기에서 선수들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며, 그 수집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수의 기량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선수들의 경기통계, 체력 상태, 부상 이력 등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개별 선수의 시합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수의 훈련 계획 수립은 최적의 퍼포먼스를 도출할 수 있기에 빅데이터 기반 스포츠 분석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예로, 경기 도중에 선수들의 위치, 속도, 터치 시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면, 경기에 대한 전략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시합에 임할 수 있음으로 이는 선수의 경기 성과에까지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포츠 과학

사물인터넷기술(IoT)의 발전으로 선수복 외 야구장갑, 골프장갑, 야구방망이, 골프채, 테니스라켓, 헬멧, 신발 속에 마이크로센서를 삽입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 예로 독일축구협회는 'SAP Match Onsite'라는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축구선수들의 정강이 보호대 밑, 선수복 및 축구공 속에 마이크로센서를 삽입하여 시시각각 공간 좌표데이터를 수신받아 각 선수들의 순간 가속도, 이동속도, 볼 접촉 기록을 모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이동 궤적을 통한 공간 분석, 평균 속도, 볼 점유시간, 패스 경로 등 선수의 개별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선수들의 부상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스포츠과학이 이룬 올림픽 양궁 전 종목 금메달의 성과

양궁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과녁을 향해 어느 선수가 더욱 정확하게 화살을 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이다. 양궁은 실외 스포츠라 바람과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에 적응하기 위하여 선수들은 '오조준' 연습을 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의 R&D 기술을 선수들의 훈련과 장비 등에 접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기술이 발달하여,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차선변경, 주차 등에 쓰이는 서라운드 기술을 활용하여 야외 훈련용 다중 카메라를 적용하였고, 센서없이 영상카메라로 선수들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센서를 이용하여 바람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여 활을 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선수들 및 주변 환경의 빅데이터는 경기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는 올림픽 양궁 전 종목 금메달이라는 수확을 이루게 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의 단순히 선수의 신체적 능력과 노력으로 경기에서 최선의 성적을 얻는 시대에서, 21세기에의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외 종목에 맞는 최상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경기에 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결과, 파리올림픽의 8위의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박균익 연구위원

블랙먼데이(black Monday) 부른 경기침체의 공포와 한국경제



2024년 8월 6일 미국 경기침체와 빅테크기업 실적 악화 우려가 쓰나미처럼 퍼지며 아시아 증시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 -8.77%, 코스닥 -11.30%, 닛케이 -12.40%, 대만 자취엔 -8.35%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며 아시아를 비롯 국내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일본 엔화값이 최근 급등세를 타자 사상 최대 규모로 쌓였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까지 더해지며 낙폭을 키웠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달러로 바꾼 후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며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유출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경기침체의 공포

전날 미국 제조업 위축에 이어 고용지표 충격, 빅테크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뉴욕증시가 이를 연속 폭락했고, 미국 경기침체(Recession) 우려가 투자자들의 가슴속에 각인되었다. 이에 월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

는 9월 회의 때 '빅컷(기준금리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월가에서는 고용시장이 연준 전망보다 더 빨리 냉각되고 제롬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발언을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했다.

경기침체의 공포에 외환, 원자재, 가상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3일 공개한 실적발표에서 애플 보유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며 현금보유액이 올 6월 말 기준 최대인 2,769억달러(377조원)에 이른 점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2일 뉴욕증시에서는 경기침체 우려에 실적 부진까지 겹친 빅테크기업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AI 열풍을 이끈 '매그니피센트 7'도 속절없이 추락했다. 아마존 -8.79%, 테슬라 -4.24%, 구글 -2.35%, MS -2.07%, 메타 -1.93, 엔비디아 -1.78%로 폭락 내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애플만이 0.69%로 선방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40대의 한 개인투자자는 위 폭락장에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에서 하루 만에 전 재산인 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법률사무소를 찾아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세계경제 변곡점 직면

8월 7일 '패닉셀'은 저가 매수세, 엔화값 강세주춤 등에 의해 일단 진정되었지만, 미국 경기지표, 빅테크 주가, 엔캐리 청산,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상황 등 시장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이다.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변곡점을 맞이하며 혼돈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증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폭을 기록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시적 침체'라는 신중론에 보다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은은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경기 둔화가능성, 인공지능(AI) 투자 둔화가능성,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미국 대통령선거, 중동 분쟁 등 불확실한 요인은 있다고 내다봤다.

긴축완화의 시점 압박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는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에 한국과 미국이 긴축완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가 8일 발표한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04%로 전월 말 대비 17.8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국고채 금리 하락세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6월과 달리 지난달에는 장기물 금리의 하락 폭이 단기물보다 컸다.

이는 지난달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시장에 점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통상 단기물 금리는 통화정책, 장기물 금리는 경기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준이 본격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긴축 국면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양적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가파르게 인상되어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소매판매액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내수가 매우 부진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고용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적된 고금리가 내수와 투자를 제약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우려되는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특단의대책을 강구하여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절실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공공투자를 늘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강구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해외시장 다변화에 반도체 위주의 수출 품목도 다각화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하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경제 침체의 변곡점,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경제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현 정부의 시대를 읽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국

대구 수성구의의회 의원 의장 조규화 의원, 부의장 최진태 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 및 국가 전체적으로도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로 주민의 복지가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장이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확립되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등을 한다.

제9대 수성구 의회는 지방분권, 지방화 시대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의장 조규화



부의장 최진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수성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선언하였고,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 의회로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대구 수성구 의회 의원들과 유익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제9대 수성구의의회 후반기 의장에 오른 조규화 의원 (49년생, 4선, 국민의힘, 수성구 마선거구)이다.

조의장은 경주 출생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하고, 제8대 수성구의의회 후반기 부의장, 함장종합사회복지관 홍보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자문위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수성구 회장,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수성구 회장을 역임하는 등 수성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을 해왔다.

주요 입법활동으로는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성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 ◇수성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성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조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 당선소감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성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그만큼 수성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 행복」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구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제9대 수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된 최진태 의원(59년생, 3선, 국민의힘, 수성구 다선거구)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 및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제8대 수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바르게 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감사, 남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공헌에 헌신해 왔다.

주요 입법활동은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성구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최부의장은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구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일반 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성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힘차게 밝혔다.

수성구의회는 “의원 모두가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주민들께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편집국

척척 수행하는 김천의 씩씩이, 어모면행정복지센터 조운주 맞춤형복지팀장



김천시 어모면행정복지센터 조운주 맞춤형복지팀장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모범이 되는 어모면행정복지센터의 대표적인 공무원이기에 이번 경영저널 “칭찬합시다”에 선정되었다.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 언제부터이며 그동안 어떤 보직을 맡았는지?

2005년 9월 1일 김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8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 첫 발령받아 복지위생과, 관광진흥과, 안전재난과를 거쳐 올해 1월 첫 팀장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 가깝게 공직 생활 중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성실함을 기본 바탕으로 청렴이 제1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횡령한다는지 이해관계에 위치한 자가 관련 사업을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덕목은, 공무원 조직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일을 하다보니 세대상 호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수 십년 간 이어져 오던 관행들이 필터링 없이 이어져 오다보니 선배공무원 입장에서 후배를 배려한다고 한 업무들이 오히려 아랫사람들의 불만을 일으켜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대 간 이해하는 소통의 마음가짐이 지금 세대에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장점 혹은 강점은 무엇인가?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일반행정직은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환경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벌써 업무파악 다 된 거 같다. 지난번에 같은 업무를 해 본적 있나요?’라는 칭찬을 종종 듣습니다. 업무파악의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업무 파악한다고 속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업무파악이 다소 빠르다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조심스럽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가 순환적으로 바뀌는데,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의 어려움은 없는가?

단연 모든 공무원들의 0순위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행정직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뽑는 직류(공무원 분류)입니다.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직종이며, 작게는 주민센터 및 시청에서부터 크게는 정부청사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업무의 분야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주민등록, 회

계업무를 시작으로 복지업무, 관광업무, 안전재난업무 등 관련법과 성질이 다양한 업무를 2~3년 단위로 순환되다 보니 정말 적응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현재는 복지팀장의 보직을 담당하며,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직에 20년 가깝게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업무에 접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어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복지 및 환경업무를 수행 중인데, 이에 대한 소감은?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 행복한 삶, 건강, 윤택한 생활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개입되어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이 과도해지면 나태해지고, 무임승차하려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형평성에 맞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는 예민한 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전세계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처리입니다.

제가 지금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농촌 곳곳에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 행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적발과 행정제도가 적극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엔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재활용 인센티브, 신고포상금 등 긍정적인 환경정책개발로 불법쓰레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야 모두 다루기 힘든 예민한 분야로 민원발생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솔직히 끊임없는 민원 때문에 보람차거나, 즐거운 순간보다는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렵게 생계를 이어 나가는 독거노인들께 방문 출장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감동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복지가 꼭 제도적으로 거창한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행동, 소소한 말 한마디가 소외계층에겐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복지의 밑거름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별명이 있는가?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걸을 때 좀 빨리 걷는 편인데, 그게 남이 봤을 때는 씩씩하게 보이거나 봐요. 그래서 씩씩이라고 가끔 불립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데 여럿이 함께 협동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 혼자 급하게 앞서가려는 부분은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힘들고 고단한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공직 생활을 해 보니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법·제도와 상충되어 이해충돌하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하다 보니 대화를 통해 이를 이해시키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꾸준히 키워야 됩니다.

이제 지나온 공직생활보다 남은 기간이 적게 남은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공직 생활도 시민들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역량있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현 기자

■ 이달의 대경인

AI기반 의료솔루션 개발로 AI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정보통신(IT) 전문기업 (주)신라시스템 박창병 대표 인터뷰

본보에서는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의 대경인' 코너를 진행한다. '이달의 대경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주)신라시스템 박창병 대표가 선정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며, 의료,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ICT 기업으로서 탁월한 AI 기술 개발과 응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의료솔루션 산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주)신라시스템이다. (주)신라시스템의 박창병 대표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눠보았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신라시스템을 경영하고 있는 박창병입니다. (주)신라시스템은 2005년 창업 이후 20여년간 IT분야에 매진하여 공공 부문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유한 공공통합예약솔루션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인 ◇통합 예약솔루션을 필두로 ◇안전관리

솔루션, ◇제조AI솔루션, ◇헬스케어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AI기반 첨단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10여개의 지재권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기술혁신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을 창출하여 디지털혁신 및 IT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대한민국디지털경영혁신대상 헬스케어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으로 헬스케어 AI 플랫폼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인접 관계사 포함 매출 60억원을 달성하였고, 향후 3년안에 매출액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료 AI 사업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 도모 및 지역사회의 디지털 기술혁신을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현 주력 사업 영역을 뛰어넘어 헬스케어 분야에도 도전하는 중입니다.

Q (주)신라시스템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연구 투자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2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재 ◇AI기반 의료솔루션, ◇안전관리솔루션, ◇데이터구축 및 개방, ◇디지털헬스케어, ◇통합예약 정보시스템 구축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신라시스템이 보유한 핵심 솔루션은 혁신성과 공공성, 범용성, 고객을 위한 최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 코스닥 상장 기업의 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상용화된 분야와는 다른 차별화된 AI기반 의료용 진단 및 보조솔루션(Medi-AI Series)은 신라시스템이 특히 심혈을 쏟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골격계 플랫폼 사업자를 목표로 AI기반 헬스케어기업

Pine-DX Series

AI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근골격계 질환 진단보조 및 진행 예측 솔루션

Cobb's Angle 판독

Pine-DXC

Cobb's angle 자동 계산
Nash Moe Grade 자동 계산

뼈 나이 판독

Pine-DXB

수부 X-ray 판독을 통한
뼈 나이 진단
골반 X-ray 판독을 통한
Risser Grade 진단

Cobb's angle
+ 뼈 나이 기반
척추측만증 진행 예측

Pine-DXS

Cobb's angle 자동 계산 및
환자의 뼈 성장도와 임상정보를 통합한
진단 결과 제공
Cobb's angle과 Nash Moe Grade 통합
척추 이상 상태 종합 분석
+ 환자의 연령대별 뼈 성장도 신적 적용을
통한 진단 결과 고도화 제공



진단정확도 **95%**
뼈인식 정확도 **95%**
오인식 비율 **3% 이내**

기존 EMR, PACS 시스템 연계
필수가 아닌 **독립적 사용 가능**

(주)신라시스템 현재 주력제품 요약

의 선두 주자가 되고자 척추측만증 진단을 위한 혁신적인 AI 솔루션인 Pine-DX Series를 개발하였습니다. 3가지 주요 제품은 ◇척추뼈의 휨 정도를 자동계산하는 딥러닝 AI 모듈을 탑재한 Pine-DXC, ◇뼈 나이를 판독,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Pine-DXB, 통합한 척추측만증 진단 및 예후 예측하는 Pine-DXS 등입니다.

Q 주력 제품의 성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A 모든 제품들은 95%의 진단 정확도와 95%의 복원 정확도를 포함하며, 의료 기록시스템(EMR, PACS)과의 완벽한 호환성으로 사용자는 3분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Pine-DX 시리즈는 첨단 AI 기술을 통해 의료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료 전문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이 시리즈는 미래 핵심 주력 제품으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신라시스템만의 경영철학이 있다면?

A (주)신라시스템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제적 시야의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Globalization, 혁신

적인 기술개발의 Innovation, 지역 사회와의 상생인 Co-prosperity를 3대 경영철학으로 삼아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주)신라시스템만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 '공유를 통한 성장'을 지향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각오를 밝힌다면?

A (주)신라시스템은 대구를 대표하는 ICT 기업으로 지금까지 탁월한 AI 기술 개발과 응용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의료 솔루션 산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적은 예산으로도 구축 운영이 가능한 실시간 공공통합예약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 업체로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공예약솔루션 분야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의 의료 및 헬스케어 등 다방면의 기술 분야 R&D에 대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앞장섬으로써 지역 기업을 넘어 향후 전문 헬스케어기업으로도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편집국

지역중소·중견기업의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산업“R&BD허브”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은 소재·부품·장비와 주조 및 금형, 로봇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 가속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세계국가들은 초연결사회로 긴밀하게 관계지어지고,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공급망과 연결된 산업 생태계는 국가 간 이해관계나 무역분쟁 등으로 때론 직접적인 큰 충격이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들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DMI

지난 23년간 지역기업의 든든한 벗으로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동반자의 행보를 걸어온 지역산업 “R&BD”기관이 있다. 송규호 원장이 이끄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이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32(호림동)에 본원을 두고, 달서구에 성능평가동, 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 달성군에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DMI는 지역 기계·금속 산업체의 시험평가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기반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산업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DMI는 혁신 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차별화·전문화된 시험평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초연구와 기업체의 사업화 간 간극을 좁혀주는 실용화 및 R&BD 중심의 사업화와 양산 관련의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꾸준히 성과를 내며 성장·발전 해온 DMI

2001년 8월에 설립된 DMI는 2002년 9월 현 법 인명으로 변경되고, 2004년 8월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정을 획득, 2007년 9월 제4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국무총리 기관 표창, 차세대금형기술혁신 기반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 6월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2012년 10월 전자기적합성(EMC)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선정, 2013년 7월 대구스타기업 우수 육성 전담기관에 선정되어 대구광역시 표창을 수여했다.

2017년 12월 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2019년 초소형 전기차 환경부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기

차 부문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성과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연구와 다양한 사업분야 지원

DMI의 주요 사업분야는 연구 및 시험분야와 기업 지원 분야이다.

연구분야 사업으로는 ◇공동연구개발, ◇자동차부품 연구, ◇기계로봇연구, ◇생산시스템연구, ◇스마트에너지연구, ◇뿌리기술연구, ◇첨단공구연구 등이다.

시험분야 사업은 지역의 기계·금속 산업체의 품질 개선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험평가 및 정밀측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카트로닉스 부품의 고가시험 분석지원, 소재분석 및 해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지도, 품질관리 및 불량요인 규명 시험을 통한 품질향상, 국내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지원,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지원한다.

◇전기적합성평가, ◇자동차부품의 모터성능평가 및 E-mobility 성능평가, ◇소음진동평가, ◇로봇성능분석, ◇지능기계모듈부품성능평가, ◇부품소재 및 금형 설계해석,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지원분야사업은 ◇시생산 및 시제품 제작, ◇애로 기술지원, ◇기술이전, ◇연구기반활용사업, ◇기업지원네트워크, ◇산학연공동연구실 운영 등이다.

미래신산업 육성과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올해 대구시는 미래 5대 신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대혁신을 이루고자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와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로봇, 시스템 반도체,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MI는 이에 발맞춰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전환 및 숙원사업 해결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가 증대되고, 산업공급망 강화를 통해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경제상황에서 DMI는 전국 유일의 기계부품산업 중점연구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DMI는 기계로봇, 뿌리·금형, 소재응용, 첨단공구·가공, 미래자동차, 에너지 등 6대 핵심 연구분야에서 R&D 중심 사업화 및 실용화 관련 기술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함으로써 국가전략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DMI 송원장은 “지역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도전과 기술적 난제들에 대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혁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DMI만의 차별화·전문화된 시험평가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DMI 전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미래비전과 각오를 밝혔다.

편집국

■ 축제 및 관광 story

영천문화예술제

제50회 영천문화예술제가 10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3일간 영천강변 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하는 영천문화예술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진행 될 예정이다.

읍·면·동 장기자랑과 제28회 전국 왕평가요제와 전국 품바페스티벌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일상속의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충전하길 바란다며 축제 관계자는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영천문화예술제라면,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영천의 축제도 준비 되어 있다.

별의 도시 영천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영천별빛축제도 풍성하게 준비 중이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오는 10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3일간 영천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대 1.8m 천체 망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와 천문과학관이 있는 보현산 자락에서 개최되는 올해 별빛축제는 우주의 거대한 보석, 신비로운 행성 “목성”을 주제로, 슬로건은 “영천의 별을 담다, 거대한 목성을 품다”로 정해 열린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는 누워서 별보기가 인기가 좋으며, 별관측 스타 파티에서는 낮에는 태양 관측과 설치된 다양한 조형물을 즐길 수 있고, 천문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수준 높은 과학강연도 참여 할 수 있다.

개막날인 10월 4일 당일에는 드론 라이트쇼, 개막 퍼포먼스, 제작영상 송출 등 다양한 개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 외 프로그램으로는 주제관 운영, 천문·우주·과학 관련 키트 만들기 등 체험 행사로 축제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영천 별빛 축제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단위의 축제로 지식을 충전했다면, 미각을 충전하기 위한 영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축제도 같은 10월에 열린다.



영천 와인페스타 &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



제12회 영천 와인페스타&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가 10월 12일 (토)에서 13일(일), 양일간 열린다.

영천강변 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영천의 지역우수 농특산물인 영천와인과, 명품 한우를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영천 와인페스타는 와인특성화 도시 영천의 와인을 만끽할 시간과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써, 와인 무제한 시음 및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와인문화 체험, 포토존, 와인투어 프로그램 소개, 시음 평 이벤트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는 영천 별빛 한우 사업단이 주관하여, 한우 고기 할인 행사, 320석 규모 한우구이 식당 운영, 무료 시식 행사 등 영천의 명품 한우를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시식, 할인 행사 외에도 버스킹, 재즈공연, 지역문화 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고 하니, 오감을 즐기기에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영천의 시정 방침 중에 한가지는, 「멋들어진 문화관광」이라는 목표로 영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런 영천의 노력이 다가오는 10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영천이 진심으로 준비한 다양한 축제를 즐기러 영천 방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김수영기자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쉼터
자연의 풍요로움과 배움의 성장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교육원



대경리조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경리조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과 대구경북지역의 비전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이희용교수

대구·경북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또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주제는 공항이 아닐까 한다.

공항의 개념은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다 흩어지기 위한 단순한 교통시설 및 공간의 개념에서 시작된다. 물론,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능과 부가가치는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도 공항 그 자체가 비즈니스 지역이거나 도시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공항의 확정성과 미래 방향성을 통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 전체에 걸친 발전을 촉진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공항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산업, 관광, 문화, 교육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내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제적 영향

대구경북신공항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신공항의 개항으로 약 5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흘러들어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이끌 것이다. 특히 항공 물류의 허브로서 대구·경북은 세계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신공항 주변에 형성될 물류단지과 배후 권역의 산업단지는 첨단 제조업, IT, 바이오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용 창출 역시 중요한 효과 중 하나로, 신공항은 약 49만 명에 이르는 고용 유발 효과를 예상된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공항의 개항은 지역 경제가 수도권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관광·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

대구경북신공항은 관광과 문화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신공항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은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북도는 신공항과 연계한 의성 문화관광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북의 유교 문화, 신라 역사, 자연 자원 등을 결합한 관광 상품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또한, 대구의 공연, 쇼핑, 의료 관광 자원과 경북의 전통문화 자원이 결합하여 대구·경북을 초광역 관광벨트로 성장시키는 잠재력을 지닌다.

복합문화공간 및 관광 단지 조성은 단순히 외부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신공항 주변에 예정된 메타버스 면세점, 컨벤션 센터, 복합 문화시설 등은 대구·경북이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닌, 동아시아의 중요한 문화·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은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신공항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지역 내 대학들과 협력해 첨단 항공 물류, IT, 바이오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 대학들은 신공항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항공 관련 기술 개발, 물류 시스템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새로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들은 국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글로벌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신공항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인재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닌 의미와 지역민의 준비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은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경제적, 산업적, 관광적, 교육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며,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신공항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며, 대구·경북 지역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의 개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 산업 종사자들은 글로벌 관광 추세에 맞춘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지역 주민들은 신공항을 통한 글로벌 교류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를 새로 마련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다. 이 공항의 개항은 대구·경북 지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구·경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정책제안

대구 동구청 정책제안

동대구역세권은 지난 2016년 연말에 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개점하고, 현대아울렛 대구점, 2021년 연말에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유명 음식점 등이 입점하면서 대규모 변화가 시작되었다.

대구지역의 중심상권은 1900년대 향촌동에서 1969년 12월에 대구백화점이 개점하면서 동성로 상권의 중심축이 옮겨졌다. 그리고 대구백화점 본점 주변이 대구지역에서 최고의 공시지가를 기록할 만큼 지역 경제발전엔 한 축을 담당했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흥준표 시장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되면서 「중구 동성로에 젊은이의 광장과 쇼핑 문화거리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대구시와 중구는 동성로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전략적 홍보 마케팅과 관광인프라 및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대구 도심의 중심상권이 동대구역세권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불법 주정차, 빈 상가와 빈 모텔, 그리고 낙후된 주변 환경이 역세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구청은 수요급변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대구 동구청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동대구역세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동대구역세권 상권분석과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상권 프로그램 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관광특구 혹은 경제특구 지정신청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경윤 연구원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리더 역량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등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및 프로그램

- AI·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경영평가사 자격수여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학점인증제 및 교육훈련
- 펀(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그루타워 502호
(대흥동 873-1)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 대구 단신

동성로를 찾은 시민, 청년 및 상인 등 300여 명과 토크 버스킹 진행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동성로 관광특구!!! 쇼핑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대구광역시는 8월 16일(금) 오후 6시, 동성로28아트스퀘어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기념행사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과의 토크 버스킹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버스킹은 동성로를 다시 대구의 중심, 젊음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청신호가 될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대구광역시장인 시민, 청년, 동성로 상인 등 300여 명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대구혁신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동성로는 우선 쇼핑의 거리로서 스페인 광장처럼 관광객이 먼저 찾고 싶은 명품 거리로 조성이 돼야 하며, 가게에 문이 없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밤새도록 공연이 펼쳐지는 젊은이의 거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로 명성 회복을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공실을 없애야 하며,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혁신으로, 동성로 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우나 동성로에 공연과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구는 한반도 2대 도시였으나, 지금은 부산, 인천에 밀려있다. 통합이 될 경우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구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지본처’를 언급하며 청사배치 문제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문제해결로는 폐쇄성 극복과 산업재배치를 언급했다. 인재 채용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개혁적인 개방을 진행하고, 민선 8기에는 전통산업을 미래 산업으



로 개편해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2년의
 책임 기간 중 시행한 대구혁신 100+1 모든 사업에 애
 착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토크 버스킹은 동성로를 찾은 시민과 상인들이 묻고 흥
 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
 구시와 동성로에 관한 현안뿐 아니라 '인생의 터닝포인
 트', '피부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법'과 같은 개인적인 질
 문에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으로 참석한 시민들과 유쾌
 한 웃음을 나누고 큰 박수를 받았다.

버스킹을 마친 후 류규하 중구청장은 "홍준표 시장님의
 버스킹을 통해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삶, 앞으로의 비전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
 구의 상징적인 거리인 동성로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
 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의 심장이자
 젊은이의 성지인 동성로의 부흥을 위해 중구와 함께 다
 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구
 시민들도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아이 키우기 최적지'로 급부상

경상북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경상북도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을 20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도내 다자녀 가정이 주거지를 옮길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사비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경북으로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한 가구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40만원으로 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24년 1월 이후 경북으로 전입 또는 경북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2.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2자녀 이상

지원내용

- 24.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원 완료한 이사 비용 지원

지원금액

이사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제 지원

신청기간

2024. 8. 20. ~ 12. 31.
국·reshan 초산 사 조기 마감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혹은 모바일 앱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cv/v456c/main/htLogin>
모바일 앱 : 경북 예산군 효명길 53
경북여성가족위원회 정책기획과 3층 연구사업부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입,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별서류
이사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포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054-850-7961

이사비 신청은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24(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이사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으로 이사할 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 돌봄,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기자

The 21th
2024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영천의 별을 담다,
거대한 목성을 품다

2024.10.4.^[금] - 10.6.^[일]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

주최·주관 | 영천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 후원 | 영천시

경영저널은 불편한 진실을 알려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이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소방서, 화재 피해추정 엉터리]

실제손실과 4~9배이상 차이

최근 경기 부천 도심 호텔 화재 사망 사건에서 소방서 추산 피해 금액은 실제 피해 금액과 확연한 차이로 인하여 국민의 눈높이와는 많은 오류가 있다.

화재보험협회 발표에 따르면, 「소방추산 피해 금액은 직접적인 손실액과 4~9배까지 차이 이상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 화재 피해액을 줄여서 보고

소방서 추산 피해 금액은 안전행정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훈령에 따라 산출된다고 한다.

화재 피해 금액 산정(상기 제18조 제1항)은 「화재 피해 금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 하는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경과 연수 등에 따른 감가 공제를 하고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 가액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방관계자는 「과거에는 실제 피해액을 줄여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추산금액 차이가 다소 있다」고 한다.

또한, 「화재 피해 시 보험금액은 현물뿐만 아니라 영업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서 추산 피해 금액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감정평가원, 현실성있는 반영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와 내부 보고 자료로 이용된다」고 밝히고, 「지금은 한국감정평가원의 공시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재사건에서 소방서는 추산 피해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과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가 많기 때문에 소방 당국과 한국감정평가원의 공시기준을 매년 조사하여 현실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가윤 기자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실무 교육”

경영평가사1급 2024 자격시험!

10월
시험공고!

경영 실무자 필수 / 보고서 평가 등급 “S” 받기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경영 담당자

과목		대상자	일정
ESG와 지속가능경영	조직 관리와 리더십	경영 평가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	홈페이지 참조 및 세부 사항은 전화문의
경영평가 방법론	회계 세무의 이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영 실적 보고서 관련 담당자	대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dghrd.co.kr
인적자원 관리론	경영실적 보고서 실무	경영 평가 우수탁 용역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자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격명 : 경영평가사1급
- 등록번호 : 제2023-004860호

- 자격발급기관 : 주식회사 대경인재개발원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문 의 ☎ 053-766-1368

대경인재개발원

대경인재개발원
블로그 바로가기 ▶



동쪽 끝에서
내 생애 가장
(2) 멋진 하루

동해 푸른 바다 위
가장 먼저 태양이 뜨는 곳,
넓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가
마음을 쓸어내리고

내딛는 발걸음 따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시간의 기억이 흐르는 독도

반짝이는 별을 지붕삼은
고요하고 멋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동쪽 섬, 독도

